

정신지체를 중심으로 본 결혼과 출산

장애인들도 이성애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사랑을 하고 성취할 권리가 있다. 이는 인간으로서 추구할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결혼과 자녀의 출산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커다란 장벽에 부딪치게 된다. 가족과 사회에서 체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김돈규
중앙대 의대 소아재활의학과
교수

결혼, 자녀 양육의 문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들도 이성을 만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사랑을 하고 성취할 권리가 있다. 정신지체 장애인이라도 성적인 느낌이나 성숙은 정상인과 차이가 없으며 그들만의 이해를 통해 서로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장애인들도 남들과 똑같이 성생활을 누리는 것은 인간으로서 추구할 당연한 권리이다.

성 문제와는 달리 결혼에 관한 것은 다른 여러 가지 고려할 현실적인 점을 포함하고 있다. 즉 결혼과 반드시 동반되는 경제적인 면을 비롯하여 가족, 친척과의 사회적 관계, 2세 양육의 문제 등 비장애인들도 최근의 이혼율 증가에서 보듯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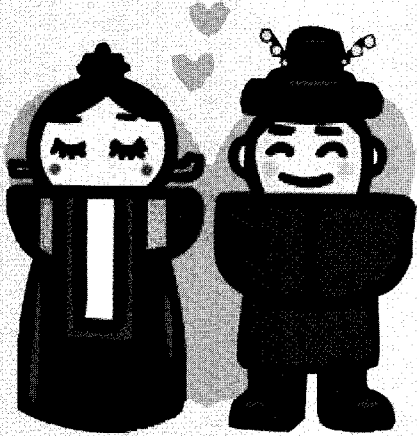
정신지체인의 결혼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많은 제약이 있다. 사회 및 부모, 친척들 등의 편견, 경제적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등으로 인해 그리고 수용 위주의 장애 대책 등으로 쉽지 않은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신지체인의 생식 능력에 관한 문제가 있어도 근본적으로 비유전성, 비선천성의 정신지체의 경우 생식능력에는 큰 지장이 없다. 정신지체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발달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적절한 감각적, 교육적 자극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하므로 후천적,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의한 정신지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유전의 가능성이 높은 장애일수록 정신지체의 정도가 심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증장애의 경우 실제로 유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경증장애인이 계획에 따른 철저한 의학적인 평가를 거쳐 2세를 낳을 경우 생물학적 유전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겠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지체가 출산의 가



능성이 정상인에 비해 높으므로 신중히 생각해야 하고 특히 육아문제에 있어서는 자녀들이 적절한 교육적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충분히 해야 한다.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 지원체계 중요

결혼한 부부는 기능이나 기술면에서 상대방의 결점을 보완해주는 식으로 두 사람의 기능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서로 의지한다고 한다.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서는 충분히 성숙된 20대 후반이나 30대에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커플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충분한 경제적 수입이 있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파트너들이 결혼 전에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있고 행복하다면 좋고 정신지체 자녀들이 결혼 생활의 좋은 본보기로서 배울 수 있을 만큼 그들의 부모들이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좋다.

더욱이 어린 시절의 양육과정이 정신지체인의 성공적인 결혼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원만한 결혼생활과 가족생활의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외에도 커플이 사는 곳에 또는 가까운 곳에 부모, 친척, 친구 등과 같은 지원체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

육아, 사회 공동 책임으로

현대사회에서 자녀양육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 공동으로 일정한 책임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 육

아휴직제나 사내 탁아소 등을 법제화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원칙에 의하여 점차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의 하나이다. 외국에서는 정신지체 부부가 자녀를 키울 경우에 다양한 지원체계가 발달 되어 있다고 한다.

정신지체인의 아동양육에 대해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는 보고는 많이 있다.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무조건적으로 아이를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는 철저한 가족적, 사회적 준비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정신지체 성인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거나 또는 갖지 않는다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또한, 아이 갖기를 원한다면 장애아동이 태어날 가능성도 이야기 해 주어야 한다. 또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느끼고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아마도 정신지체 성인들에게 결혼과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남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사항이 될 것이며 앞으로 삶의 질을 결정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다.

장애인들도 이성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사랑을 하고 성취할 권리가 있고 이것은 장애인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추구할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단순한 성 문제를 넘어 결혼과 자녀의 출산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커다란 장벽에 부딪치게 된다.

그러나 앞서서도 보았듯이 주변에서 조금의 체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국가적으로 장애의 문제는 점차 개인이나 가족의 범위를 넘어 사회의 문제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런 장애인의 결혼 및 자녀의 문제에 대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범위 내에서 장애인 개인, 가족 및 우리 사회가 이를 뒷받침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